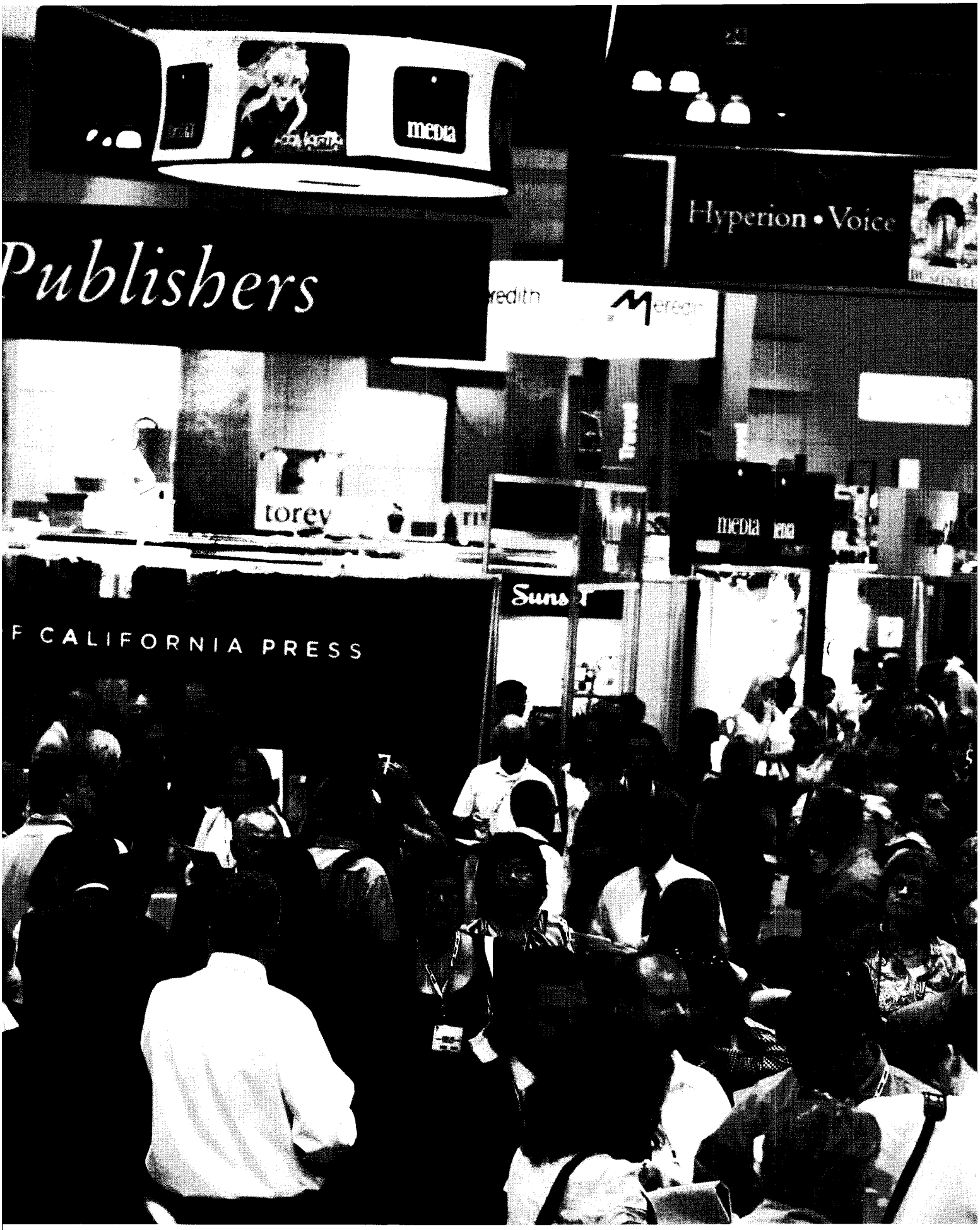
media
Hyperion • Voice
Publishers
torey
media
F CALIFORNIA PRESS

북엑스포아메리카에 한국인쇄관 조성

대한인쇄문화협회, 수출상담 큰 성과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지난 5월 29일부터 1일까지(4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북엑스포아메리카 2008에 한국관을 조성, 한국의 인쇄문화 및 경쟁력 있는 인쇄상품을 적극 홍보했다.

북엑스포아메리카는 통상 65개국 2천개업체가 참가하고 6만여명의 방문객이 참관하는 미국 최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전이다. 이 전시회에서는 일반 출판물은 물론이고 아동 · 교육물, 오디오 · 비디오, 지도 · 지구의, 예술서적, 종교물, 전문 · 기술 · 과학물, 심령과학물, 외국어물, 대학출판물 등이 폭넓게 전시된다. 북엑스포아메리카는 책에 대한 무한한 열정으로 출판사, 서점, 도서관 사서들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한편, 전세계의 전문가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저작권 판매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 개최됨으로써 세계 각국의 출판인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저작권 판매로 본다면 세계 최대 규모다. 전시회 이외에도 부대행사로 작가들의 컨퍼런스, 출판관련 마케팅세미나 등 60여회의 세미나 및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고인쇄 시연 · 1천여 인쇄홍보물 전시

한국관은 대한교과서㈜, 두산동아㈜, 청아문화사를 비롯해 20개 업체가 인쇄홍보물 및 브로슈어 등을 전시, 총 23개 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부스 이름을 Printing Korea로 하여 방문객이 한국의 인쇄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며, 고급인쇄물, 미술인쇄물 등 우리나라가 외국 인쇄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인쇄물을 전시하여 수출 상담 활동을 지원했다. 이에 이번 전시에서는 460만 달러 이상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졌다. 한국인쇄문화홍보관에는 미술인쇄물, 고급책자, 성경, 사전, 캘린더 등 1천여 점의 인쇄물과 참여업체 카탈로그 및 홍보용 책자, 특수인쇄물 등이 전시됐다.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